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의 해외 네트워크  
: 북미 학술단체의 도시연구 논의의 내용과 지형을 중심으로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목차

1. 서론
2. 중국 도시의 변화와 UCRN 국제회의의 논의
  - 1) 1999년~2004년: 세계화(globalization)와 중국의 체제전환이 가져온 도시공간의 사회경제적 재구성
  - 2) 2005년~2010년: 도시공간 상품화와 도시의 사회문제
  - 3) 2011년~2013년: 신세대 농민공과 신형도시화(新型都市化)
3. UCRN 소속 연구자들의 사회연결망 분석
  - 1) 연구자 소속 학술기관의 소재국가
  - 2) 국제회의 개최지별 분류
  - 3) 연구자의 사회연결망
4. 결론

1. 서론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도시화율은 1949년 12.5%에서 1978년 17.9%로, 30년 동안 불과 5.4%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개혁개방의 중점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면서 중국의 도시들은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도시화율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2.9%, 2011년에는 51.3%에 달했다. 33년 만에 33.4%가 증가한 것이다.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대량으로 도시로 와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된 것이 이러한 도시화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농민의 도시이주 증가와 함께, 도심재개발, 철거, 이주, 빈민촌, 중앙상무구역(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교외의 베드타운 형성, 대중교통시설의 확대 등 토지의 상업적 가치의 발견과 토지사용효율의 극대화에 따라 도시 공간구조가 급격히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중국 도시변화의 근본동력은 1978년 개혁개방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그 변화의 속도, 규모, 성격 등에서 서방의 도시발전 경험과 많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해외의 도시연구자들은 시장화 개혁의 중점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간 1990년대부터 중국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기 시작한다.<sup>1)</sup>

이 논문의 목적은 개혁기 중국 도시변화라는 현실의 역동성을 배경으로 중국의 지식네트워크가 해외의 지식네트워크와 만나는 양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개혁기 중국의 도시를 연구하는

---

1) 여기서 말하는 도시연구(Urban Studies)는 학제적인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도시와 도시의 삶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연구대상은 도시를 구성하는 정치제도, 경제적 사회적 관계, 물리적 경관, 문화적인 틀 등이다. 도시연구는 학제적 성격으로 인해 건축, 사회학, 예술사, 인류학, 환경연구, 경제학, 역사, 문학, 정치학 등 다른 분과학문들의 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독특한 실체로서의 도시 그 자체와 더 큰 사회 속에서의 도시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연구는 특정한 인간 정착의 패턴을 생산해내는 과정들을 조사하고, 도시화에 의해서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지역들 사이의 관계변화를 조사한다.

북미 학술단체가 개최한 국제회의의 논의를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학술단체 소속 연구자들 사이에 국제적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지식이 학술단체를 통해서 해외의 지식네트워크와 만나서 상호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담론과 인적 네트워크 두 가지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담론적 차원의 분석은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주제가 어떠한 내용의 당대 중국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이고, 인적 네트워크 분석은 담론분석에서 추출한 키워드에 기초하여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두 지역의 도시연구자들 사이에 어떠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논문이 담론분석에 더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는 이유는 중국의 당대 도시현실에 관련된 지식이 해외 지식네트워크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분포되어있는 지형을 밝히고, 동시에 중국과 해외의 어떤 특정 연구자를 통해서 그 지식이 해외의 지식네트워크와 연결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학술단체는 북미(北美)<sup>2)</sup>의 도시연구자들과 중국의 도시연구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학문 네트워크로, 구체적으로는 “중국도시연구네트워크(The Urban China Research Network, 이하 UCRN)”<sup>3)</sup>를 가리킨다. UCRN은 미국 앤드류 멜튼 재단(Andrew Melto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서 1999년 뉴욕주립대학 올버니 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이하 올버니)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홍콩침례대학(香港浸會大學),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 시안자통대학(西安交通大學), 중산대학(中山大學), 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社會科學院), 푸단대학(復旦大學) 등의 유럽과 중국의 학술기관들의 중국도시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 확대되었고, 1999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7회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자들을 소속 학술기관의 소재지로 보면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캐나다, 미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고 전공분야는 사회학, 정치학, 도시계획, 인류학, 인구학, 역사학, 지리학, 문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전반에 걸쳐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RN을 대상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해외의 중국 도시연구자들의 학술논의를 분석하여 개혁기 중국의 도시에 관한 지식담론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한다. 연대기적 추적 방법을 취한 것은, 해외의 중국 도시연구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래 중국 도시변화의 역동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도시공간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조응하는 UCRN의 논의를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의 중심주제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UCRN 도시연구 논의에 대한 담론적 차원의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과 북미의 도시연구자들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

2) 이 논문에서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북미라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학술단체 네트워크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미국이며, 분석대상인 “중국도시연구네트워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기초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장소가 뉴욕주립대학 올버니 캠퍼스이고, 이 학교 사회학과 교수 량자이(梁在)와 브라운대학(Brown University) 사회학과 교수 존 로건(John R. Logan)이 이 네트워크의 공동책임자(co-directors)로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의 일정부분은 캐나다에 주재하고 있고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연구자들의 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 조직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양한 국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상호교류 하는 측면과 중국 내에서 생산된 공간생산 지식이 해외에 투사하는 측면 중 전자의 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 또한 만약 미국이라고 할 경우 소재지만이 아니라 국민국가적 정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 “미국” 등의 표현을 피하고 잠정적으로 북미라고 한다.

3) 중문명은 中國城市研究網絡.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mumford.albany.edu/chinanet/>. 이하의 UCRN 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

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 2. 중국 도시의 변화와 UCRN 국제회의의 논의

개혁기에 들어서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의 사회문제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는 주로 도시부문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1990년대 이전의 서방의 중국도시연구 학계는 주로 소수의 화인(華人) 연구자의 전공분야로, 서방의 전체 도시연구 학계에서 비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도시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생겨나자 중국도시연구에 대해 중국 국내는 물론 서방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sup>4)</sup>

이렇듯 서방학계가 개혁기 중국의 도시연구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서방이 과거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간에 걸쳐 경험해 온 거의 모든 도시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 사회계층화, 주택결핍, 환경문제 등을 중국 도시는 1990년대부터 20여년이라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둘째, 개혁기 도시변화는 토지 사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그 주요 동력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의 핵심이해당사자이자 지방정부-국유기업-부동산개발회사로 이뤄진 성장연합<sup>5)</sup>을 구축하는 주도세력이 된다. 셋째, 역사적 배경과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개혁기 중국에서는 서방 도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순과 문제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도시주변부에 농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빈민촌인 성중촌(城中村), 2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도시이주, 단위(單位)의 사구(社區)로의 공간 거버넌스의 변화, 공유제 주택제도의 폐지와 상품방 위주의 주택시장의 형성 등은 서방도시에서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 고유의 도시현상이다.

이러한 개혁기 중국 도시현상(Urban Phenomenon)의 고유함과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서방 도시연구 학계의 급속한 관심증가를 배경으로, UCRN 국제회의에서 이뤄진 논의는 개혁기 중국 도시변화의 이러한 고유함과 그 의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논의의 내용에서 도시연구에 대한 원론적 토론이나 철학적 탐구보다는 당대 중국 도시부문의 개혁의 진행이라는 현실의 역동성이 가져온 도시현상에 대응하여 기존 서방 도시연구 학계에서 축적되어온 개념과 이론을 비판적으로 적용하거나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이래 현재까지 중국 도시변화의 현실에 대응하여 제기된 연구영역을 연대기적으로 3분하여 제시하고, 각 시기에 UCRN 국제회의에서 이뤄진 논의를 회의주제와 발표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별한 후, 이러한 논의가 반영하고 있는 해당 시기 중국 도시변화의 실재를 살펴보기로 한다.<sup>6)</sup>

### 1) 1999년~2004년: 세계화(globalization)와 중국의 체제전환이 가져온 도시공간의 사회경제적 재구성

1999년 7월 상하이에서 UCRN과 상하이사회과학원 공동주체로 개최된 제2회 국제회의의 주제는 “중국 도시의 미래: 21세기 연구 아젠다(The Future of Chinese Cities: A

4) 張京祥 胡毅 羅震東, 「海外中國城市研究的管窺與思考」, 『國際城市規劃』, 2013년 4期, 59쪽.

5) 중국어로는 증장연맹(增長聯盟)이라고 한다.

6) 이하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張京祥 胡毅 羅震東, 2013년 4期, 59-61쪽.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였다.<sup>7)</sup> 이 회의의 조직책임자인 존 로건은 기초 연설을 통해 중국도시연구와 관련하여, 세계화, 이주, 시장화개혁이라는 3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였고, 중국과 해외의 120명의 연구자들이 26개의 세션에서 발표했는데, 혼인, 소수민족지역, 관광, 지역 거버넌스, 도시계획, 국제투자결정 등의 주제를 다뤘다.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변화가 도시에 가져온 영향과 이러한 변화를 중개하는 제도의 구조와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대부분의 논의는 농민공의 도시 이주에 관한 문제로, 생활조건, 주 변화, 격리 및 귀향 등의 문제들에 집중되었다.

2002년 6월 올버니에서 개최된 UCRN 제4회 국제회의는 “중국의 도시: 도시연구의 후속세대(Cities in China: The Next Generation of Urban Research)”로 주로 박사과정 학생들과 젊은 학자들 위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 회의는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세션의 제목은 중국의 도시-농촌 이주, 도시의 정책과 정치, 중국 도시의 불평등, 도시의 변화이다. 발표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형성, 이주제한과 도시화, 호구제도 개혁과 이주, 사구발전과 NGO, 연금개혁, 사회적 불평등과 도시주민, “다공메이(打工妹)” 정체성, 개혁기 도시 상업공간, 농촌의 도시화, 사구건설과 정부기능 변화, 사구와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 사구건설과 민간조직, 상하이 노스텔지어와 사구건설 등이다.<sup>8)</sup>

제5회 국제회의는 2003년 4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중국의 도시연구와 인구학(Urban Studies and Demography of China)”을 주제로 개최된다. 제4회 회의와는 달리 중견과 원로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논문을 발표한 이 회의는 2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자가 논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모두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제목은 공간불평등과 도시재구조화, 세계화와 중국 도시의 변화, 중국 이주와 사회적 의료적 결과,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세션의 제목이 곧 발표된 논문의 제목이다.

제7회 국제회의는 “체제전환기 중국의 도시(Urban China in Transition)”라는 주제로 2004년 5월 산타모니카에서 개최되었는데, 모두 1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교외화, 출산율과 이주, 관광개발, 계급불평등, 빈곤, 여성노동, 조직변화, 공간불평등, 배타적 주거, 근린지역조직, 범죄피해, 농민공의 도시적응, 이주와 주거, 질병, 도시정체

7) UCRN의 제1회 국제회의의 제목은 “중국 국내 이주와 도시화와의 영향(Internal Migration and Its Impacts on Chinese Urbanization)”으로 1999년 5월 미국 올버니에서 개최되었는데, UCRN의 국제회의 홈페이지(<http://mumford.albany.edu/chinanet/ucrn2014/index.asp>)에서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제목이나 참관기록을 소개하는 글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제2회 국제회의는 UCRN 국제회의 홈페이지에 발표논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술지에 게재된 낸시 네팅의 참관기(Nancy S. Netting, “Conference on the Future of Chinese Cities: A Research Agenda for the 21<sup>st</sup>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000 Vol. 24.1)를 통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이 참관기에도 발표논문의 제목은 나와 있지 않고, 회의의 전반적인 주제와 참가인원 및 주된 토론주제만이 제시되어있다. 제3회 국제회의는 2000년 12월 홍콩침례대학에서 “중국도시연구(Doing Research on Urban China)”라는 제목으로 되었는데, UCRN 홈페이지에는 발표논문의 제목이 나와 있지 않다. 2003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회 회의 “중국의 도시: 도시연구의 후속세대 2부(Cities in China: The Next Generation of Urban Research Continued)”도 홈페이지에 제목만 제시되어있고, 발표된 논문제목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본격적인 담론분석은 2002년 6월 올버니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회의부터 시작된다. 그 외, 2001, 2006, 2007, 2008, 2011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 외는 2014년까지 매년 1, 2회 개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관기를 확보할 수 있는 제2회 국제회의를 제외하고, 제1회, 제3회, 제6회 국제회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8) 이후 이 논문에서 나오는 UCRN 국제회의의 각 세션과 발표논문의 영문제목은 <첨부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 탈사회주의 도시 등이다.

2004년 12월 홍콩침례대학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회의의 주제는 “중국의 도시: 도시연구의 후속세대 3부(CITIES IN CHINA: THE NEXT GENERATION OF URBAN RESEARCH: PART3)”였다. 이 회의에서는 모두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지난 4회와 6회 회의처럼 이 회의도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박사과정과 젊은 학자들이 주요 발표자였고, 공식세션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2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중국과 미국의 중견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를 보면, 농민공 귀향, 이주통제, 농민공 자녀학교, 실업, 도시빈곤, 하강(下崗), 투자, 기업가주의, 사회적 자본, 계급구조, 역사도시, 도시재개발, 상하이의 사구건설, 호구문제 등이다.

이 시기 UCRN 국제회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중국 도시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농민공의 대규모 도시진입과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이다. 1980년대 “농업에 종사하나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나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離土不離鄉, 進廠不進城)”, 주로 농촌에서 새로이 등장한 공업기업인 향진기업(鄉鎮企業)에서 일하던 농민공들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도시부문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도시로 대규모 진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농민공들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호적을 부여하는 호구제도로 인해서 도시에 진입하여 국유기업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국유기업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도시민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의 충원을 둘러싸고 도시의 서민층과 농민공들이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도시지역에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지방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받는 도시민과 달리 농민공들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도시에서 각종 차별에 노출된다. 이 시기 농민공들은 주로 당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초래한 건설수요의 급증에 따라 가족을 고향에 두고 단신으로 도시로 와서 주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였으며, 얼마간의 수입이 축적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할 의사도 별로 없는 이방인으로 존재했다.

둘째, 중국 도시관리체제의 핵심기제인 단위가 서서히 해체되어 사구(社區)로 재편되는 공간 거버넌스의 변화이다. 1950년대 후반 형성되어 사회주의 시기는 물론이고 개혁기인 1980년대에도 유지되고 있던 중국의 단위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 도시지역의 개혁이 본격화되자 해체되기 시작한다. 기존에 도시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사실상 모든 것을 포괄하던 조직이자 공간 거버넌스였던 단위는 시장화 개혁의 심화와 함께 본래 단위가 담당하던 주요한 사회경제적 기능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되자 소속 인원에 대한 규율권력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약화되었고, 특히 1998년 국무원 결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공유제 주택제도의 공식 폐지는 단위 소속감 약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단위들은 자체보유하고 있던 주택들의 소유권의 일부를 주민에게 매각하고, 경제력을 갖춘 일부 주민들은 주택시장에서 상품방(商品房)을 스스로 구매하기 시작한다.

한편 국가는 이미 약화, 해체되고 있는 단위를 대체하여 도시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장이 아닌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관리하는 사구의 건설을 도시지역에서 추진한다. 특히 1999년~2004년 시기는 사구건설을 위한 실험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2월에는 국무원 민정부(民政部)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국사구건설시험구(全國社區建設試驗區)’를 선정하여 사구건설을 실험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각 지역의 사회정치적 조건을 반영한 지역별 모델들이 형성되기까지 한다.<sup>9)</sup> 사구건설은 단위를 대체하여 국

가와 사회가 만나는 기층 사회정치공간의 재구성 과정이므로, 기존 단위 내의 당조직을 통한 소속 인원의 지배를 대체하여 원래 도시주민의 약 5%만을 담당하던 주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권력의 최말단 기구인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의 지도를 받는 명목상의 ‘자치기구’인 주민위원회는 1990년대 말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택 소유자조직인 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 기존 단위 소유의 주택을 관리하던 부서인 방관소(房管所)가 탈바꿈한 물업공사(物業公司) 등과 함께 사구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이 된다. 이에 국가는 가도판사처 층위의 당공작위원회(黨工作委員會)의 하부조직인 당지부(黨支部)를 거주지역(주로 주민위원회 내부) 층위에 설치하여 기층정치공간에서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물업공사 등을 장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도시거버넌스의 변화와 함께 개혁기 지방정부의 지상목표가 된 경제성장을 위해 도시공간구조가 상무지역, 거주지역, 생산지역 등으로 기능적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이다.<sup>10)</sup> 1990년대 이후 중국 지방의 도시정부는 특히 “도시 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 혹은 “지방정부 기업화”의 성격을 보인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도시정부가 업무의 중점이 기존의 주민의 복지와 행정에서 경제적 성장으로 옮겨가서 마치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정부가 자신이 장악한 행정자원 혹은 독점자원(예를 들어, 토지, 환경인허가권, 세수 등)을 통해 지방의 경제적 이익을 최단 시간 내에 극대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시적인 경제총량과 재정수입 등 지표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전체목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게다가 도시정부는 도시의 토지자원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지방 국유기업의 소유권 주체로서 기업이윤을 재정수입으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 개발프로젝트에서 부동산개발회사, 국유기업 건설회사 등과 함께 성장연합의 핵심세력이 된다.

## 2) 2005년~2010년: 도시공간 상품화와 도시의 사회문제

제9회 국제회의의 주제는 “체제전환기 중국의 도시(Urban China in Transition)”로 2005년 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기초연설을 포함해서 모두 1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발표된 논문의 주제를 보면, 이주, 계급 불평등, 여성노동, 도시빈곤, 범죄, 공간 불평등, 교외화, 배타적 거주, 근린조직, 조직변화, 이주노동자의 도시적응, 주택, 질병 등이었다.

제10회 국제회의는 “중국의 도시: 도시연구의 후속세대 4부(CITIES IN CHINA: THE NEXT GENERATION OF URBAN RESEARCH: PART4)”로 2005년 7월 상하이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맨 마지막의 총회(plenary session)를 포함하여 모두 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를 보면, 도시공간구조 변화, 사회적 관계망, 국유기업 해체, 다국적 기업, 도시 불평등과 빈곤, 도시정책,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중국의 경험과 도시 사회과학 등이다.

9) 사구의 지역별 모델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를 “정부주도형” 사구와 “자치형” 사구를 각각 대표하는 상하이(上海)와 선양(瀋陽)의 사구의 역사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밝힌 논문은 다음을 참고. 박철현, 「중국 사구모델의 비교분석: 상하이와 선양의 사례」, 『중국학연구』, 2014년 제69집.

10) 현(縣), 향(鄉), 촌(村) 층위의 도시와 농촌의 지방정부의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는 다음을 참고. Tony Saich,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Analysing the local state in China” in Luigi Tomba ed, *East Asian Capitalism: Conflicts and the Roots of Growth and Crisis* (Annali della Fondazione Giangiacomo Feltrinelli, 2002).

2009년 1월의 제11회 국제회의는 “중국발전의 경향(TRENDS IN CHINA'S URBAN DEVELOPMENT)”를 주제로 해서 중산대학에서 개최되었는데, 5개의 세션과 3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는 도시화의 역동성, 농민공 도시이주가 농촌에 가져 온 충격, 농민공 노동계약, 농민공의 집합행동, 저층사회, 사구와 거버넌스, 도시연구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 등이다.

제12회 국제회의는 2010년 5월 올버니에서 “중국과 북미의 사회과학 시각(Social Science Perspectives from China And North America )”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모두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는 발표된 논문의 주제는, 이주 노동자 노동시장, 성중촌, 농민공 시민권, 농민공 차별 등이었다.

중국의 WTO가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이와 맞물린 체제전환으로 도시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전 시기에 비해, 이 시기는 중국경제가 연 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기존의 도시공간변화가 가져온 각종 사회문제가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첫째, 도시공간 불평등 심화로 도시 공간구조의 위계화가 발생했다. 사회주의 시기 중앙정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체인 지방정부를 통해서 개별단위에게 단위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단위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부문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었고 단위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계획과 사실상 무관하게 단위 소속인원을 위한 인프라를 건설해나갔다.<sup>11)</sup> 하지만 개혁기에 들어서는 재정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 층위 도시계획 부문의 권한과 기능이 회복되었고, 동시에 지방정부는 소속 도시지역의 토지자원의 사용가치에 대한 직접적 관할권을 확보하게 되어서 재정수입 증가를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1991년 도시지역 국유토지의 양도제도 실시를 계기로 토지시장이 형성되고 도심의 토지가치가 증가하여, 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고급주택지, 쇼핑몰, 중앙상무구역, 관공서 등이 자리잡게 되고, 사회주의 시기 도심에 존재하던 공업시설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외로 이전되게 되는 등 도시공간구조의 급격한 재편이 발생한다. 또한 도심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교외의 새로이 조성된 거주지역으로 이주해가거나 도심의 빈민촌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둘째, 도시공간의 위계화와 상품화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sup>12)</sup>이다.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은 1960년대 중반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런던의 저소득층 노동자 거주지역이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고 기존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가리키면서 만든 표현인데,<sup>13)</sup> 상업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쇠락한 도시 내부공간을 중산층의 거주지로 재개발하고 기존의 저소득층 거주자들은 교외로 밀려나거나 또 다른 빈민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sup>14)</sup> 중국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들이 거주하는 “고급커뮤니티(高尚社區)”나 “현대적인 아파트(現

11) David Bray, *Social Space and Governance in Urba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11-112; Duanfang Lu, *Remaking Chinese Urban Form: Modernity, Scarcity and Space, 1949-2005* (New York, NY: Routledge, 2006) pp. 85-89.

12) 중국어로는 “신사화(紳士化)”라고 번역한다.

13) Ruth Glass, *London: Aspects of Change* (London: MacGibbon & Kee, 1964).

14) 김걸,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과 설명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7년 제10권 1호, p. 37.

代公寓)” 등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일찍이 1990년대 중후반 시작된 재정과 행정의 분권화가 심화되어 지방정부는 조세수입원 확보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2005년~2010년 시기에 들어오면, 기존에 지방정부나 단위(單位)가 직접 거주지역 재개발에 투자하던 것에서 부동산개발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sup>15)</sup>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도시재생이 높은 토지수익률을 실현시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기 초기 내내 오랫동안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던 도심의 거주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작업으로 이어졌고, 이후 2005년~2010년 시기 도심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표출되었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불평등과 함께 이 시기 중대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이 바로 2010년 이미 2억 4천만 명을 넘어선 농민공이 도시에서 사회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현상이었다.<sup>16)</sup> 이러한 현상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구축된 제도에 의해서 조장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인 1952년에 수립되었다가 2003년 8월에 비로소 폐지된 「수용송환제도(收容遣送制度)」가 바로 대표적인 제도이다.<sup>17)</sup> 이것은 임시거주증이 없이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를 가리키는 ‘맹목적 유동인구’를 수용한 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고 농촌에서 추출한 잉여가치를 도시 부문으로 이전하여 공업화를 추진한 중국 사회주의의 성장방식을 가능하게 한 호구제도(戶口制度)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농민의 임의적인 도시유입을 금지하는 제도가 호구제도인데, 만약 농민이 이를 어기고 도시로 유입되었을 경우 「수용송환제도」에 의거 경찰이나 청관(城管: 도시관리 단속반)이 농민을 수용소에 수용한 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수용송환의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인권유린, 불법구류, 강제노역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다.

넷째, 2000년대 초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구모델이 성립되었던 것에서 더욱 진화하여 이제는 하나의 사구모델 내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분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를 “자율형 사구모델”로 종종 거론되는 선양(瀋陽)의 경우, 4가지로 다시 분화가 일어났다.<sup>18)</sup> 분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중대형 국유기업과 소속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는데 2004년 노후공업기지 개조정책의 본격화로 공장의 철거와 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 기존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으로 혼입(混入)된 것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구구성원의 동질성 약화와 이질성 증가는 동일한 사구모델 내부에서의 분화를 가져왔고, 당-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사구 내부에서 공산당 기층조직을 강화한다.

한편 “주민의 다양성” 증대에 대응하여 기층의 당 조직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선양보다 사구

15) 何深靜 劉玉亭, 「市場轉軌時期中國城市紳士化現象的機制與效應研究」, 『地理科學』, 2010년 제30卷4제4期, 498쪽.

16) 사실 1958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에 의해서 수립된 호구제도가 농민공에 차별과 폭력이 생겨난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정과 폐지에 관한 논의는 이 시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17) 「수용송환제도」의 정식명칭은 「도시 유랑구걸 인원 수용송환방법(城市流浪乞討人員收容遣送辦法)」으로 성립, 변화 및 폐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주쉬핑 저 박철현 이광수 공역, 『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 (서울: 학고재, 2014).

18) 4가지 분화형태는 “구역형(板塊型) 사구”, “주택단지형(小區型) 사구”, “단위형(單位型) 사구”, “기능형(功能型) 사구”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박철현, 2014, p. 337.



주민의 이질성이 훨씬 더 큰 상하이에서 더욱 뚜렷하다. 1990년대 후반 가속된 푸동(浦東)개발을 배경으로 2003년 상하이의 유동인구는 이미 480만 명에 달했다. 따라서 2005년~2010년 시기에는 기존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혼입된 유동인구와 푸동지역에 국가주도로 위계적으로 건설된 “행정사구(行政社區)”<sup>19)</sup>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 조직을 건설해서 정치적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 3) 2011년~2013년: 신세대 농민공과 신형도시화(新型都市化)

UCRN의 제13회 국제회의는 “포스트사회주의 도시(Cities after Socialism)”를 주제로 해서 2012년 3월 프로비던스에서 개최되었는데, 모두 6개 세션에서 6편의 논문을 발표되었고 주제는 도시 근린지역, 교육기획, 이주민, 도시계획과 관리 등이었다.

2012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회의의 주제는 “중국 도시의 공간적 사회적 변화(Spati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Urban China)”였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는 도시클러스터, 지속가능한 발전, 메가시티,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토지와 주택 시장, 도시기업가주의, 거주 양극화, 범죄, 도시재생, 노동시장, 폐쇄적 거주지역(gated community), 저항,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등이다.

제15회 국제회의의 주제는 “차세대 중국도시연구자 양성(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Urban China Scholars)”으로 2013년 1월 중산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발표된 논문의 주제는 농촌도시화, 사구교육의 건설과 참여, 도시의 공동체들, 소수자 집단, 사회자본 등이었다.<sup>20)</sup>

이 시기는 이전 시기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된 각종 사회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11년을 계기로 중국의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사실로, 이것은 중국의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혁기 중국 정부가 도시화를 장기적 거시적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전략으로 구상하고 추진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배경으로 UCRN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중국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처음 발생하여 1990년대 중후반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농민공 집단도 분화가 일어나서 “신세대 농민공(新生代農民工)”이 등장하였다. 신세대 농민공은 대체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서 주로 1세대 농민공인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도시로 왔거나 도시에서 태어난 농민호구소지자들이다. 2013년 기준 농민공 2억 6천만 명 중 신세대 농민공은 1억 6천만 명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임금노동자로서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1세대 농민공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적 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도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1세대 농민공과는 달리,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를 자신이 평생 살아야 할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민 신분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권리의식이 강하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징은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이 진행 중인 중국의 도시에서 이전에는 좀체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행동을 낳는다. 대표

19) 행정사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철현, 2014, p. 345.

20) 제16회 국제회의는 2013년 12월 중산대학에서 “중국의 도시변화와 구조조정(China's Urban Transformation and Restructuring)”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관련 웹사이트에는 회의의 세부주제만 제시되어있고 발표된 논문의 제목이나 발표자 이름은 없다.

적인 것이 바로 2010년 난하이(南海) 혼다(Honda) 자동차 부품공장 신세대 농민공의 파업이다. 도시공간에서의 노동을 마치 계절노동(seasonal employment)처럼 사고하는 1세대 농민공과는 달리, 신세대 농민공은 비록 신분은 농민이지만 자신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민과 노동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한 신세대 농민공을 도시공간에서 순조롭게 통합해내는 것은 도시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들의 도시통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도시공간에서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의 저소득층으로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2009년 5월 선양의 노점상인 샤전핑(夏俊峰)은 청관의 단속과 집단구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청관 인원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결국 사형이 집행된다. 샤전핑은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농민공으로 도시의 공장에 취업했다가 공장이 파산하자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길거리 노점상으로 전락한다. 샤전핑의 부모도 환경미화원과 퇴직노동자로서 하위계층이며, 그의 아내도 같은 고향 출신인 농민공이다. 노점상 샤전핑의 단속부터 사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이 시기 도시정부가 신세대 농민공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면서, 당-국가가 추진하는 신형도시화와 글로벌시티가 장래 어떠한 “중국식 도시사회(Chinese Urban Society)”를 가져올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신형도시화는 전국의 도시를 특대도시,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도시호구 취득제한 정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농민이 도시로 진입하여 도시호구를 취득할 때 특대도시는 엄격한 제한, 대도시는 합리적 취득조건 제시, 중등도시는 순서에 따라, 소도시는 전면개방이라는 제한조건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베이징(北京) 상하이 광저우 선전(深圳) 등과 같은 특대도시에 농민들이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간 규모 이하의 도시지역 및 성향결합부(城鄉結合部)로 진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고소득자, 투자자, 고학력자, 기술보유자 등만이 특대도시의 호구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아래의 대도시, 중등도시에는 그보다 낮은 “자격조건”을 갖춘 인원이 호구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 농민들은 가장 낮은 소도시에만 진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도시내부 공간구조의 위계화와 더불어 도시들 사이의 위계화도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2장에서는 UCRN의 제1회 국제회의가 개최된 1999년부터 제15회 국제회의가 개최된 2013년까지를 시기적으로 3분하고, 각 시기 회의들의 주제와 논문에서 파악되는 키워드를 정리하고, 이러한 주제와 논문들을 낳은 중국 도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2장의 작업은 복미에 본부를 둔 중국도시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해당시기 중국도시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 논의내용의 분석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발표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연구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3장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 3. UCRN 소속 연구자들의 사회연결망 분석

2장의 담론과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중국 도시변화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이 장에서는 UCRN 소속 연구자들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서는 UCRN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소속 연구자들의 소재국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재국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연구자 실제로 소속되어있는 학술기관의 소재국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중국국적의 연구자가 미국의 학술기관에 소속되어있으면 소재국가는 미국이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연구자는 중국 내부의 도시연구자 지식네트워크가 UCRN과 연계되는 미국 측 노드(node)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국적의 연구자가 중국의 학술기관에 소속되어있으면 소재국가는 중국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가 중국 내부의 도시연구자 지식네트워크가 UCRN과 연계되는 중국 측 노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의의 개최지역도 중요하다. 국제회의를 개최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국가의 학술기관에 소속된 도시연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네트워크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 연구자 소속 학술기관의 소재국가

UCRN 홈페이지의 소속회원정보 제공화면에서 수집한 회원명단과 소속 학술기관에 근거하여 소재국가별로 연구자의 인원수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sup>21)</sup> 201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소속 전체회원수는 모두 109명이고, 그 중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79%를 차지한다. 당초 UCRN을 조직한 공동책임자가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고, UCRN의 공식사무실이 올버니에 있으며, “중국도시”연구에 관한 지식네트워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홍콩이 16.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홍콩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지만, 특별행정구의 지위를 중국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서 중국 본토와는 구분되는 교육과 학문체계에 기반한 연구가 축적되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연구자의 소재지로서 중국 본토와는 독립적 존재로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인원수	비율(%)
중국	46	42.3
미국	29	26.7
홍콩	18	16.5
캐나다	7	6.4
프랑스	2	1.8
네덜란드	2	1.8
싱가포르	2	1.8
영국	2	1.8
아일랜드	1	0.9
합계	109	100

표(1) UCRN 소속 연구자 소속 학술기관의 소재국가별 인원수와 비율

#### 2) 국제회의 개최지별 분류

#### 3) 연구자의 사회연결망

21) <http://www.s4.brown.edu/CProject/CreateUser.aspx>

#### 4. 결론

##### 참고문헌

- 김걸,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과 설명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7년 제10권 1호
- 박철현, 「중국 사구모델의 비교분석: 상하이와 선양의 사례」, 『중국학연구』, 2014년 제69집
- 주쉬핑 저 박철현 이광수 공역, 『중국 정책변화와 전문가 참여』 (서울: 학고재, 2014)
- 張京祥 胡毅 羅震東, 「海外中國城市研究的管窺與思考」, 『國際城市規劃』, 2013년 4期
- 何深靜 劉玉亭, 「市場轉軌時期中國城市紳士化現象的機制與效應研究」, 『地理科學』, 2010년 제30卷4 제4期
- Nancy S. Netting, "Conference on the Future of Chinese Cities: A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000 Vol. 24.1
- Tony Saich, "The Blnd Man and the Elephant: Analysing the local state in China" in Luigi Tomba ed, East Asian Capitalism: Conflicts and the Roots of Growth and Crisis (Annali della Fondazione Giangiacomo Feltrinelli, 2002)
- David Bray, Social Space and Governance in Urba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11-112
- Duanfang Lu, Remaking Chinese Urban Form: Modernity, Scarcity and Space, 1949-2005 (New York, NY: Routledge, 2006) pp. 85-89.
- Ruth Glass, London: Aspects of Change (London: MacGibbon & Kee, 1964)

